

해남 황산 산소마을, 어촌체험마을로 신규 조성

지주식 김 채취·염전·개막이·덤장체험 운영 가족 관광객 등 유치... 어민소득 증대 기대

해남군이 어촌체험마을 육성으로 어민소득 증대에 나선다. 군은 9일 "올해 5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생산으로 유명한 황산 산소마을을 어촌체험마을로 신규 조성한다"고 밝혔다. 산소마을이 어촌체험마을로 조성

되면 친환경 지주식 김을 생산하는 유일한 지역인 만큼 관광객들에게 김 채취와 제조과정을 전방식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갯벌에 생육하는 망둥어와 낙지, 농게, 굴, 꼬막 등을 관찰할 수 있도록 갯벌체험을 운영하고 인근 한

자마을의 염전 등을 이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썰물 때 들숨이나 자망에 갇혀 고립된 어패류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는 '개막이체험'과 물고기 떼를 한국에 몰아 고기를 잡는 전통어로기법인 '덤장체험' 등이 마을의 자랑이다. 특히 기존의 어촌 체험이 주로 여름철에 진행되는 반면 산소어촌체험마을은 김을 활용해 겨울철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 더욱 경쟁

력이 있을 것으로 굳은 기대하고 있다. 체험장은 올 여름 성수기 전까지 완공된다. 이와 함께 군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송지 사구(후릿그물체험)와 북평 오산(갯벌체험)에도 계절별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인근 북평 남창 5일시장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수확여행단을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송지 송호 전복체험장에도 전복치패를 육성해 전복먹이주기 체험, 전

복수확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 북평 신흥마을 바다낚시 체험장도 운영하는 등 프로그램 질적 향상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4개월 운영할 수 있는 어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어촌 관광 활성화를 꾀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시지역 자매결연 교류 등도 적극 추진해 어민 소득 증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기자 노트

목포시에 유행하는 '따로 국밥'

목포시에 최근 '따로 국밥'이 유행하고 있다. 임기를 4개월여 남겨놓은 정종득 목포시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의욕적 행보를 펼치고 있으나 시장의 영(令)이 일선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생각 따로 손발 따로' 노는 현상을 빚낸 비아냥거림이다.

보선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120일 전에 사임해야 하지만 정치적 입장이 녹록치 않아 3월말 사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 시장은 지역에서 소문이 무성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전남지사 선거 출마시 보선에 뛰어들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단행한 매킨지 못인 인사에 청내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간부회의가 잇따르고 8개 권역으로 나눠 하던 주민과의 대화인 '동 연두순시'를 이번에는 23개 동 전부를 순회하겠다고 밝히면서 '따로 국밥' 현상에 불을 지폈다. 향후 정 시장의 정치적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직원들은 파란만장한 일을 왜 쫓아가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고규석 목포주재기자

그럼에도 유독 시청 공직자들만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 소문만 있고 실체는 없는 설에 얽매어 '아니 댄 굴뚝에 연기만 계속 지피는' 소모적인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권력누수로 치부하기엔 해도 너무 한다'는 시민들의 눈초리가 따갑다. 이유가 어쨌든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들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로 일관하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 진정어린 충성은 시장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시장 역시 마음을 내려놓고 '삼학도에 뼈를 못질했다'는 초심을 되새기는 것만이 시민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될 것이다. /yousou@kwangju.co.kr

무안, 보조금 사업 관리 엉망

표고시설 증고품·참기름 가공시설 선지급 등 물의

무안군이 보조금 편취한 사업자에 대해 환수나 고발 등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보조금 사업 선정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군에 따르면 산림청 공모사업인 톱밥 표고 배지시설과 친환경식품 인프라구축사업인 참기름 가공시설에 당초 납품하기로 한 시설이 아닌 증고품을 설치하거나 보조금을 선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의 톱밥 표고 배지시설사업 현장조사에서 납품기계 12개(1대 2500만원)이 증고품으로 설치돼 보조금 편취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참기름가공시설 역시 군에서 보조금 90%에 해당하는 3억2400만원을 선지급해 추진하면서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또 보조금 회수과정에서 담당 실과인 농정과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사업 포기를 유도한 후 보조금 지급사업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난해 말 보조금 3억2400만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보조금 편취 사업자들이 전국버섯협회 회장, 농림부장관상 수상자, 농업 선정 새 농민상 수상자 등 지역저명인사로 드러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인터넷에서 만나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도시지역 생수 공급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7일 신안군 소재 낙도인 흑산도, 가거도, 비금도, 도초도 등 4개 섬에 생수 1056박스, 완도군 소재 낙도인 통화도, 신도, 노륙도 등 3개 섬에 생수 1024박스를 긴급 지원했다. 신안·완도군의 경우 이번 겨울 강수량이 10~27mm에 그쳐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식수난을 겪고 있다. <신안군 제공>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7일 신안군 소재 낙도인 흑산도, 가거도, 비금도, 도초도 등 4개 섬에 생수 1056박스, 완도군 소재 낙도인 통화도, 신도, 노륙도 등 3개 섬에 생수 1024박스를 긴급 지원했다. 신안·완도군의 경우 이번 겨울 강수량이 10~27mm에 그쳐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식수난을 겪고 있다. <신안군 제공>



고창읍성 문화간판사업 2억 지원받아

고창군은 9일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한 아름다운경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선진간판문화 선도를 목적으로 추진한 '2014년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공모에 선정돼 고창읍성 주변 문화간판개선사업이 국비 2억 5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판개선사업 공모전은 전라북도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부 2차 심사에 통과함으로써 선정이 확정됐다. 군은 이에 따라 모두 4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창읍성 주변

65개 업소, 93개 간판을 정비할 예정이다. <사진> 주민·상가 대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주민설명회, 우적으로 추진한 '2014년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공모에 선정돼 고창읍성 주변 문화간판개선사업이 국비 2억 5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판개선사업 공모전은 전라북도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부 2차 심사에 통과함으로써 선정이 확정됐다. 군은 이에 따라 모두 4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창읍성 주변

전북

완주군 인구 21년만에 최고

8만7000명... 기업유치·혁신도시 이전 증가세 지속

완주군 인구가 1월말 기준으로 8만7000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1993년 이후 21년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같은 인구증가세는 기업유치, 귀농·귀촌 등 다양한 농촌활력정책,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의 이전 본격화 등에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군에 따르면 1월말 현재 인구가 8만7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8만7522명이었던 1993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완주 인구는 지난 1992년 8만942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감소되다가 2004년 8만2482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민선4기가 출범한 2006년 8만3199명을 비롯해 2008년 8만3757명, 2010년 8만5119명, 2012년 8만6164명 등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말 8만6978명을 기록하더니 새해 들어 한 달만에 8만7000명을 돌파, 도내 전체 인구수의 4.65%를 차지하게 됐다. 완주군의 인구증가는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1단계 조성 완료 및 2단계

추진과 이에 따른 기업유치, 로컬푸드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도시민 유치 등에 힘입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방행정연수원, 대한지적공사에 이어 올해 농촌진흥청 등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될 계획이어서 증가세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임정영 완주군수는 "지역주민의 행복에 총력을 다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구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며 "모두가 노력하고 협심해 거둔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마을 안녕 기원 '천년송 당산제'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 뱀사골 계곡 와운(臥雲)마을에서 9일 천년송(천연기념물 제424호) 당산제가 열렸다. 천년송 문화보존회 주관으로 열린 당산제는 이환주 남원시장을 비롯해 주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안녕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제례의식, 천년송 소원 빌기 등으로 진행됐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 뱀사골 계곡 와운(臥雲)마을에서 9일 천년송(천연기념물 제424호) 당산제가 열렸다. 천년송 문화보존회 주관으로 열린 당산제는 이환주 남원시장을 비롯해 주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안녕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제례의식, 천년송 소원 빌기 등으로 진행됐다. <남원시 제공>

단신

군산, 신흥동 일대 5.4ha 도시숲 조성

군산시는 9일 "자연재해 위험지역인 신흥동 일대 5.4ha의 터를 도시숲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공원 조성은 재해방지와 월명공원의 자연경관 회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내년까지 30억원이 투자된다. 도시숲에는 삼림유종과 생태놀이터 등

이 들어선다. 군산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월명공원 내 조각공원, 수시탑, 근대역사 문화거리와 연계한 관광벨트 형성으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박승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도교육청, '동학농민혁명 교재' 발간

전북도교육청은 9일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교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교재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과 전개 과정, 정신과 가치, 주요 유적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학생들의 시와 동화 등으로 구성됐

다. 다양한 사진과 그림, 만화를 넣어 학생들이 재미있게 공부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교재를 역사를 배우는 전북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수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고창, 34억 들여 기계화 경사로 28km 확보

고창군이 올해 관내 61개 지구에 34억3100만원을 투입해 기계화 경사로 28km를 확·포장하기로 했다. 경사지가 완료된 농경지 내 주요 농로와 이와 연계되는 연결 농로를 포장해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촌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세부

설계 시부터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는 진입로, 차량 교차로 또는 정차장소 등을 계획해 경사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1995년부터 기계화 경사로 확보사업을 추진, 대상으로 808km 중 지난해 말까지 507km(63%)을 완료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남원, 올 주요 민원 5대 추진전략 선정

남원시가 올해 중점 민원서비스 목표는 '시민이 공감하고 감동하는 친절행정 실천'을 위해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 시민을 섬기는 모범 민원실 운영, 시민 재산권 보호로 신뢰 받는 토지행정, 도로명 주소 정착 및 인지도 향상,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활용 등 5대 중점 추진 전략

과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민원서비스로는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사회소외계층 무료우편배달, 마을제산 일제조사 및 관리대장 제작, 야간민원실 운영, 민원안내 전담제, 사전심사청구제,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등이 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정읍 시립중앙도서관 19일 개관

휴게실·유아방 등 갖춰 7만여권 도서·소설 구비

정읍시는 9일 "내장상동에 지은 시립중앙도서관을 오는 19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도서관은 국비 27억원을 비롯해 모두 80여만원을 투입했으며 지상 4층, 전체 건물 면적 3500㎡ 규모로, 종합자료실과 열람실, 다문화교실, 강당, 휴게실, 어린이자료실, 유아방 등을 갖췄다. 종합자료실은 7만여권의 전문도서와 소설, 잡지를 갖추고 있으며 노

인을 위한 '실버코너', 사이버강의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코너'도 있다. 어린이 자료실은 2만여권의 그림책이 있어 어린이들이 집처럼 편안하게 독서를 할 수 있으며 유아방은 엄마와 함께 책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이다. 다양한 독서교실과 체험행사, 유명인 초청 강의 등도 진행한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새 도서관은 현대식 시설과 시스템을 갖춰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문화공간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읍=박희석기자 parkss@